Global Issue Report 09-006
2009. 3.31

한-칠레 FTA 성과와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1. 한-칠레 FTA 개요 / 3

3 1) 한-칠레 FTA 체결 경과
4 2) 한-칠레 FTA 주요 내용

2. 한-칠레 FTA 체결 효과 / 8

8 1) 한국의 대 칠레 교역동향 분석
14 2) 한국의 대 칠레 투자동향 분석

3. 한, 중, 일-칠레 FTA발효에 따른 경쟁여건 변화 / 18

18 1) 중, 일 - 칠레 FTA 후 시장점유율 변화
20 2)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의 한중일 경합 현황

4. 우리기업의 진출성공사례 / 36

36 1) 대기업 성공사례
38 2) 중소기업 성공사례

5. 한-칠레 FTA 5주년 시사점 / 40

40 1) 한 - 칠레 FTA 5주년의 의의
41 2) 대 칠레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

참고사항

45 1. 칠레의 교역동향
46 2. 칠레의 FTA 체결 현황

요 약

올해는 우리나라가 무역협정의 첫 상대로 택한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2004년 4월 1일부로 발효된 한-칠레 FTA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속에서 당초 기대했던 시장개방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며 그간 양국의 교역량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5년 사이 양국 교역량은 4.5배나 증가했으며, 한국은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칠레의 5번째 수입국으로 성장했다.

칠레와의 FTA 체결 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세계 교역량은 연평균 18.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칠레와의 교역량은 훨씬 빠른 속도인 35.4%씩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연평균 42.4%씩 증가했으며,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3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칠레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도 상당히 개선되어 2003년 전체 교역량의 34.3%를 차지하던 적자는 2008년에 15.3%로 축소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제품(경유)은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며, 2008년 한국의 대 칠레 수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수출품으로 떠올랐다. FTA 최대 수혜품목인 승용차는 판매 대수에서 2007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다. 합성수지(폴리에틸렌)와 광산용 황산 등 화학제품도 수출이 급격히 늘어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2위를 점하게 되었다. 2003년 백만불에 지나지 않던 휴대폰 수출도 2008년 5천6백만불로 늘어났다. 이처럼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 품목은 모두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6위 이내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선점효과를 누렸으나, 뒤를 이어 중국(2006.10.1)과 일본(2007.9.3)도 칠레와 FTA를 발효시켜 시장개방 효과를 분점하면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효과 면에서 칠레 시장에서 한-중-일 경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중국과 칠레의 FTA 발효 이전인 2005년 대비 2008년 한국의 칠레시장 수입 점유율은 2%p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3.5%p가 늘어났다. 일본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다음해인 2008년 한해에만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을 1%p나 끌어 올렸다.

2008년 기준(HS 4단위)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9개이며, 그 중에서도 화물자동차, 휴대폰, 증기발생 보일러, 황산(발열) 품목은 3개국이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칠레시장 진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FTA 수혜조건 활용, 한국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 실시, 신속한 현지 투자 결정 등이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칠레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통해 MERCOSUR 등 칠레와 FTA를 체결한 주변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FTA 활용 성공사례는 칠레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주변국으로의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칠레 FTA는 양국 간 교역확대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칠레와의 FTA는 과거 다자간 방식에 치우쳐있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에 변화를 제시한 기념비적 협정으로서, 이후 싱가포르와 EFTA, ASEAN, 미국, EU 등과의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에 기반이 되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성과는 아직은 교역에 치우쳐 있으며, 양국의 투자 교류 확대로 나타나는 FTA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FTA 발효 5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향후 칠레와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1) 칠레의 이분화된 시장구조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시행 2) 새로운 유망 상품 발굴을 통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치우친 수출품목의 다변화 3) BOT 방식 프로젝트 시장에의 도전 4) IT, e-government, CDM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시장진출 기회 확대 5) 문화교류 및 국가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등이 기업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1. 한-칠레 FTA 개요

1) 한-칠레 FTA 체결 경과

□ 한-칠레 FTA 체결 배경

○ 세계 각국은 다자간 WTO(DDA) 협상의 정체로 FTA를 통한 양자 간, 소지역 간 시장 개방 정책으로 진출 방향 수정

-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신고건수는 2008년 12월 기준 421건, 발효 건수는 총 230건이며, 2010년 약 400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

○ 이 같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흐름 속에서 한국은 90년대 말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진 칠레를 첫 FTA대상국으로 선정

- 칠레는 원자재와 농축수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한국은 자동차 등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어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띰.

○ 또한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한국과 FTA를 미체결한 국가와도 무역협정 체결

- 2004년 이전, 이미 EU(2003.2.1) 및 MERCOSUR(1996.10.1)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2월 기준 58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함.

□ 한-칠레 FTA 협상 경과

○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 추진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1998년 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FTA 체결 논의를 시작한 후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공동선언,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3년 2월에 공식 서명

○ 국내 농업계의 거센 반발로 우리 측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무산되었으나,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

〈한-칠레 FTA 체결 경과〉

일자	세부내용
1998.11. 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 추진 결정
1998.11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1999.12-2002.10	제 1~6차 협상 개최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 2.15	정식 서명(서울)
2003. 7. 8	우리 측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2003.12.26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통과
2004. 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 4. 1	발효

자료원: 외교통상부

2) 한-칠레 FTA 주요 내용

□ 한국의 양허안 주요 내용

○ 우리 측 양허안의 카테고리는 총 10개이며, 품목수 기준 총 11,170개 품목 중 10,745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관세양허안의 종류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계절관세, 10년 철폐, 16년 철폐, TRQ+DDA 이후 논의, DDA 이후 논의, 자유화 제외 등임.

- 즉시 철폐 9,740개 품목 중 공산품은 9,101개로 전체의 94.3%를 차지하며, 농산물은 224개, 임산물은 138개, 수산물은 277개 품목임.

〈우리나라 양허안 개요〉

(단위: 개, %)

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 품목(농산물)
즉시철폐	9,740(87.2)	9,101(99.9)	224(15.6)	138(58.2)	277(69.5)	배합사료, 종우, 양모, 커피
5년철폐	701(6.3)	-	545(38.1)	70(29.5)	86(21.5)	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
7년철폐	41(0.4)	1(0.01)	40(2.8)	-	-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철폐	1(0.01)	-	1(0.07)	-	-	기타과일주스
10년철폐	262(2.3)	-	197(13.8)	29(12.3)	36(9.0)	토마토, 돼지고기, 오이, 키위
계절관세[1]	1(0.01)	-	1(0.07)	-	-	포도
16년철폐[2]	12(0.1)	-	12(0.8)	-	-	조제분유, 혼합주스
TRQ+DDA 이후 논의[3]	18(0.15)	-	18(1.26)	-	-	쇠고기, 닭고기, 맨드린
DDA 이후 논의	373(3.3)	-	373(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예외	21(0.2)	-	21(1.5)	-	-	쌀, 사과, 배
합계	11,170	9,102	1,432	237	399	

주: 우리나라 HS 10단위 기준 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 균등)
2) 5년 후 협상 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 철폐
3)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 칠레의 양허안 주요 내용

○ 칠레 측 양허안의 카테고리는 총 6개이며, HS 8단위 기준으로 총 5,648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관세양허안의 종류는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유화 제외 등임.

- 전체 품목 5,854개 중 공산품 1,478개(25.2%) 품목을 즉시 철폐, 10년 내 4,816개(82.2%) 품목에 대해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함.

〈칠레의 양허안 개요〉

(단위: 개, %)

카테고리	전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품목
즉시철폐	2,450(41.8)	1,478(30.6)	677(92.9)	96(100)	199(99)	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 (휴대폰), 광물성 연료(경유), 섬유·의류, 플라스틱(OVC,필름 등), 철강제품, 잡제품
5년철폐	1,994(34.1)	1,992(41.3)	-	-	2(1.0)	플라스틱제품(폴리에틸렌 등), 섬유·의류, 철강제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7년철폐	14(0.2)	14(0.3)	-	-	-	원심분리기 등
10년철폐	1,190(20.3)	1,180(24.4)	10(1.4)	-	-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의류, 철강제품
5년거치 8년철폐[1)]	152(2.6)	152(3.1)	-	-	-	타이어(승용차), 타이어(버스), 섬유·의류, 철강제품
예외	54(1.0)	12(0.2)	42(5.8)	-	-	세탁기, 냉장고
합계	5,854	4,828	729	96	201	

주: 칠레 HS 8단위 기준
1) 협정 발효 6년부터 13년까지 균등 철폐됨.
2) 품목 분류, HS code 변경 등으로 품목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 중 공산품은 자동차 및 기계류, 휴대폰 등이며, 자동차 부품 등은 5년 균등 철폐, 유류여과기는 7년 균등 철폐됨.

-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신발류, 철강제품 등은 10년 철폐 적용대상 품목이며, 타이어(승용차, 버스) 등은 협정 발효 후 6년째부터 13년째까지 균등 철폐 품목임.

□ 양국의 예외 품목 및 기타 FTA 체결 내용

○ 양국은 FTA 체결에 따른 자국 내 시장잠식을 우려하여 일부 예외 품목을 선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쌀과 사과 등 21개 품목을, 칠레의 경우 세탁기와 냉장고등 54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
  · 세탁기와 냉장고의 경우, 2001년 기준 우리나라 대 칠레 수출의 약 5% 차지

○ 이밖에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자 등에 대한 일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FTA 관세 인하 정지 혹은 최혜국 관세 및 협정상 양허표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가능
  ・농산물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GATT 94 제XIX조 및 WTO 긴급수입 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

- 정부조달에 있어 한국과 칠레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며, 기타 차별적인 국산품 우선구매요건 및 대응구매(offset) 관행을 금지함.

- 양국은 무역 및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사회기반의 한 축을 이루는 지적재산권, 특히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WTO/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을 통해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함.

- 회사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국적의무 부과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투자를 증진하고, 회사 설립 후에는 위의 규정 외에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기 투자된 투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

2. 한-칠레 FTA 체결 효과

1) 한국의 대 칠레 교역동향 분석

□ 한국의 대 칠레 교역 동향

○ 2003년 대비 2008년 한국의 중남미 전체와의 교역량은 연평균 28.5%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 중 칠레는 중남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35.4%의 성장을 보임.

- 2008년 한국의 대 중남미 수출액은 333억불로 2003년 대비 연평균 30.5% 증가하였으나, 대 칠레 수출액은 30억불로 2003년 대비 42.4%씩 증가

- 2008년 수입액 기준으로 중남미 전체(138억불)에 대해 연평균 24.5% 증가한 반면, 칠레(41억불)에 대해서는 31.3%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교역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교역량 대비 적자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교역량 대비 무역수지의 적자 비중은 2003년 34.3%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5.3%로 축소

- 대 칠레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 대 칠레 총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리수입(동광)에서 기인

〈연도별 한-칠레 교역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중남미	수출	8,802	11,563	14,987	20,591	25,781	33,267	30.5
	수입	4,594	6,651	7,017	9,732	11,324	13,756	24.5
	총 교역	13,396	18,214	22,004	30,323	37,105	47,023	28.5
	무역수지	4,207	4,911	7,970	10,858	14,457	19,512	35.9
칠레	수출	517	708	1,151	1,566	3,115	3,032	42.4
	수입	1,058	1,933	2,279	3,813	4,184	4,127	31.3
	총 교역	1,575	2,642	3,430	5,379	7,299	7,158	35.4
	무역수지	-541	-1,225	-1,128	-2,247	-1,069	-1,096	-

자료원: KOTIS

○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해 온 양국 교역은 2008년에는 수출입 모두 소폭의 감소를 보여 FTA 이후 최초로 양국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함.

-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대 칠레 교역 중 수출증가율은 -2.7%, 수입증가율 -1.3%, 교역 총액도 1.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이는 하반기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대 칠레 디젤 수출액 감소 및 대 칠레 구리 수입액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 칠레 수입시장은 연평균 27.2%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은 3%로 프랑스에 이어 8위였으나, 2008년 32억 불로 전체 수입시장의 5.6%를 차지하면서 5위를 점함.

〈칠레의 주요 수입상대국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	대 칠레 수출액						점유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1	미국	2,464	3,377	4,708	5,570	7,269	10,939	14.5	19.4
2	중국	1,245	1,847	2,539	3,487	4,878	6,795	7.3	12.0
3	브라질	2,009	2,778	3,772	4,237	4,498	5,274	11.8	9.3
4	아르헨티나	3,621	4,143	4,804	4,505	4,330	5,012	21.3	8.9
5	대한민국	506	696	1,076	1,641	3,088	3,161	3.0	5.6
6	일본	612	797	1,017	1,147	1,586	2,660	3.6	4.7
7	콜롬비아	197	294	345	363	882	2,126	1.2	3.8
8	독일	691	826	1,178	1,244	1,560	1,889	4.1	3.4
9	페루	430	694	1,107	1,427	1,686	1,840	2.5	3.3
10	멕시코	489	619	762	1,000	1,347	1,753	2.9	3.1
대세계		16,969	22,339	29,788	34,750	42,714	56,475	100.0	100.0

자료원: WTA

- 2003년 대 칠레 주요 수출국이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11.8%, 21.3%였으나 2008년에는 9.3%, 8.9%로 대폭 감소함.

○ 칠레의 대 한국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5.6%로 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브라질에 이어 6위를 차지함.

□ 한-칠레 10대 교역품목 동향

○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출품은 디젤, 폴리에틸렌 등 원자재,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류, 휴대폰, TV 등 소비재, 증기발전기 등 기자재임.

- 원자재인 석유 및 역청유의 경우, FTA 체결 이후 연평균 77% 성장하면서 2008년 기준 14억불을 수출하였으며, 에틸렌의 중합체 및 황산과 발열황산의 경우에도 각각 연평균 18%, 225% 증가세를 나타냄.

-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칠레 내 자동차 수요의 증가 및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로 연평균 각각 35%, 24% 증가함.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백만불, %)

HS 코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8/03 증가율
전체 수출액		517	708	1,151	1,566	3,115	3,032	42	586
2710	석유와 역청유	82	67	241	494	1,811	1,438	77	1,760
8703	승용차	117	190	271	377	517	525	35	450
8704	화물자동차	30	42	76	79	115	90	24	298
3901	에틸렌의 중합체	34	44	76	91	80	80	18	234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	10	11	31	40	66	57	946
8517	휴대폰 등 전화기	1	2	1	2	86	56	117	4,855
8528	텔레비전	8	14	21	32	35	51	46	660
8402	증기발생보일러	-	-	0	0	2	45	-	-
8708	자동차부품	19	23	26	30	35	39	15	205
2807	황산과 발연황산	0	2	1	1	3	36	225	36,425

주: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은 2008년 대 칠레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원: KOTIS

- 칠레의 2008년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전 인구의 87.8%를 차지하면서 2003년 백만불이었던 휴대폰 수출액이 2008년 5천6백만불로 증가하였으며, TV도 2003년 대비 2008년도에 6.6배 증가하였음.

- 증기발전기의 경우, 2007년부터 우리기업의 칠레 전력 프로젝트 시장 진출이 시작되면서 관련제품의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 2004년까지는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2008년 수출액이 4천5백만불로 증가함.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백만불, %)

HS 코드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8/03 증가율
전체 수입액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	390
7403	정제한 동과 동합금	511	928	827	1,190	1,382	1,486	24	291
2603	동광과 그 정광	219	513	657	1,369	1,274	1,255	42	573
4703	화학목재펄프	82	95	108	129	227	266	27	326
7402	정제 전 동과 전해 제용의 동양극	1	22	24	372	473	214	192	21,369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10	48	162	76	179	198	81	1,917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1	17	31	74	59	129	65	1,225
0203	돼지고기	30	55	79	82	118	88	24	292
0806	포도	14	13	19	28	47	64	36	470
2905	비환식알코올 등	83	86	138	195	176	64	-5	77

주: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입품목은 2008년 대 칠레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원: KOTIS

○ 한국의 대 칠레 수입의 경우 양국 FTA 체결 이후 구리, 목재, 몰리브덴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포도주, 돼지고기, 연어 등이 신규 수입제품으로 자리 잡음.

- 주요 수입 광물의 경우 구리제품을 중심으로 FTA 체결 이전 수입액이 미미했던 미정제동, 몰리브덴, 아연광 등의 수입이 2003년 대비 최대 19배 증가를 기록, 대표적인 FTA 수혜품목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 2007년 전후 물량 품귀현상을 빚기도 한 구리, 아연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졌음.

- 2008년 금액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포도주를 수입한 나라는 프랑스였으나 2위인 칠레산 와인도 2천8백만불을 수입하여 전체 와인 수입의 17.9%를 차지함.

□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 시장점유율

○ 한국의 대 칠레 10대 품목의 칠레시장이 2003년 이후 대폭 성장하고 있음.

- 특히 황산과 발열황산(33.1배), 석유와 역청유(15.4배), 휴대폰 등 전화기(11.7배)의 품목에서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밖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시장이 2~4배 확대되었음.

○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 품목은 모두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6위 이내

- 평판압연(31.9%), 증기발생보일러(32.4%)는 칠레 점유율 1위

- 석유와 역청유(20.5%), 승용차(27.4%), 에틸렌의 중합체(18.8%), 황산과 발열황산(16.4%)의 품목은 점유율 2위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 품목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불, %)

HS 코드	품목명	국가	수입액		점유율		순위
			2003	2008	2003	2008	
2710	석유와 역청유	한국(전체)	65(431)	1,361(6,651)	15.2	20.5	2
8703	승용차	한국(전체)	107(667)	595(2,170)	16.1	27.4	2
8704	화물자동차	한국(전체)	28(442)	102(1,688)	6.3	6.0	5
3901	에틸렌의 중합체	한국(전체)	33(158)	94(500)	20.8	18.8	2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한국(전체)	7(66)	72(224)	10.8	31.9	1
8517	휴대폰 등 전화기	한국(전체)	1(108)	78(1,256)	1.3	6.2	6
8528	텔레비전	한국(전체)	7(99)	53(439)	7.3	12.2	3
8402	증기발생보일러	한국(전체)	0(70)	86(266)	0.1	32.4	1
8708	자동차부품	한국(전체)	9(150)	23(341)	5.9	6.7	6
2807	황산과 발연황산	한국(전체)	2(14)	74(452)	12.1	16.4	2

자료원: WTA(앞의 KOTIS 통계와는 상이함.)

○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의 대부분은 한-칠레 FTA체결 이후 칠레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증가하였음.

- 증기발생보일러의 경우 2008년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점유율 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평판압연제품은 21.1%, 승용차는 11.3%, 석유와 역청유는 5.3% 증가함.

- 동 기간 점유율이 감소한 품목은 에틸렌 중합체(-2%), 화물자동차(-0.3%)뿐임.

○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 품목 중 칠레의 전체 수입시장 성장률 대비 가장 큰 시장점유율 증가세를 나타낸 품목은 증기발생보일러(칠레시장 성장률의 554배)와 휴대폰(58배)임.

□ 한-칠레 FTA에 따른 특혜관세 활용률

○ 한국과 칠레 양국은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8년 3월까지 조사된 한국 제품의 대 칠레 수출에 대한 특별 관세 활용률은 96.9%, 한국의 칠레제품에 대한 수입 시 특별관세 활용률은 90.5%임.

○ 양국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내용이 양국의 수출입업체에 충분히 홍보되었고, 관세행정절차가 선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방식이 자율발급제로 간소해졌기 때문임.

〈한국과 칠레의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발효 후 총합
칠레상품의 한국 수출 시 특혜 관세 활용률	77.7	93.8	93.6	93.3	90.5
한국상품의 칠레 수출 시 특혜 관세 활용률	93.1	95.8	96.7	98.7	96.9

자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74~2007년까지의 대 칠레 외국인투자 누적액 647억불 중 우리나라의 투자규모는 약 4천만불로 전체 FDI 총액의 0.06% 수준에 불과함.

- 일본의 대 칠레 투자는 19억불로 전체의 약 2.9%이며, 주로 광산업과 임업, 목재가공업에 투자하고 있음.
  · 대표적인 투자로는 세계 최대 광산기업인 BHP Billington의 칠레 현지 광산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를 들 수 있음.

- 한편, 중국의 투자도 한국의 2배가 넘는 8천만불을 기록하고 있음.
  · 대표적인 투자로는 2007년 Codelco 소유광산에 대한 지분투자로, 이는 중국정부의 자원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한국의 대 칠레 누적투자 현황〉

(단위: 천불, %)

구분	한국의 대 칠레 투자액	세계의 대 칠레 투자액	한국투자비율
수산업	413	308,228	0.13
식품제조업	2,000	2,313,188	0.09
목재가공업	8,508	1,198,070	0.71
화학제조업	1,303	2,928,190	0.04
기타제조업	11,843	1,510,689	0.78
도/소매업	15,304	1,583,888	0.97
통신	1,001	6,607,753	0.02
계	40,372	64,700,531	0.06

자료원: 칠레외국인투자위원회

○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 및 기타제조업 분야에서도 세계의 대 칠레 투자의 1%에 못 미침.

□ 한국의 대 칠레 투자 향후 전망

○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양국 투자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 칠레 투자는 2004년도의 980만불에 그쳤음.

〈한국 기업의 칠레진출 현황〉

연번	회사명	투자연도	지역	투자내역
1	삼성물산	1980	산티아고	지점 - 도소매업
2	삼성전자	1981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3	LG전자	1981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4	현대종합상사	1982	산티아고	지점 - 도소매업
5	STX팬오션	1987	산티아고	연락사무소 - 운수업
6	대우전자	1993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7	이건산업	1993	라우타로	단독법인 - 제조업(목재)
8	세라젬의료기	2004	산티아고	단독법인 - 도소매업
9	태웅로지스틱스	2005	산티아고	단독법인 - 운송창고업
10	포스코건설	2006	산티아고	단독법인 - 건설업(플랜트)
11	한국타이어	2006	산티아고	연락사무소 - 도소매업
12	신광산업	2007	푸르티야	단독법인 - 제조업(목재)
13	세일	2008	산티아고	단독법인-건설업(보일러)

자료원: KOTRA 산티아고 KBC 자체조사

○ 그러나 국내 업계의 칠레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상품교역에 이어 투자분야에 대한 진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FTA 체결 이후 포워딩, 타이어, 건설,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현지에 새로이 진출하여 유통 및 도소매업의 현지 주재 지·상사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현지 진출기업들은 대부분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투자진출로 보기 어려우나, 현지에 기반을 닦는 국내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양국 간 투자교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지 투자진출과는 성격이 다르나 현지 전력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진출이 증가추세인 점도 한-칠레 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스코건설이 3건의 칠레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력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칠레 시장에 기계, 장비류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한국의 대 칠레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진출현황〉

(단위: 천불)

수주일	업체명	설비구분	프로젝트명	발주금액
06.09.08	포스코건설	발전	240MW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370,000
06.12.31	두산중공업	담수	Nueva Ventanas TPP	53,427
07.10.17	포스코건설	발전&담수	캄피체 석탄화력 발전소	436,000
07.10.17	포스코건설	발전&담수	앙가모스 석탄화력 발전소	869,000
07.12.12	현대엔지니어링	발전&담수	Campiche 240MW TPP 설계용역	8,079
07.12.12	현대엔지니어링	발전&담수	Angamos 600MW CFPP 설계용역	18,146
08.01.01	두산중공업	기자재	HRSG	47,848
08.01.01	두산중공업	기자재	Angamos Boiler Project	128,837
08.01.01	두산중공업	기자재	Campiche Boiler Project	64,010
계				1,995,34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의 대 칠레 투자동향 분석

□ 한국의 대 칠레 투자동향

○ 칠레는 전통적으로 광산 및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왔으나, R&D 센터 유치 등 투자의 다변화를 꾀함.

- 광업으로의 투자유입률은 전체 투자 누적액의 약 30%를 차지함.

- 칠레의 R&D센터 유치 정책에 따라 High Tech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Off-shoring 대상국 및 중남미의 R&D센터로도 가능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1974~2007 대 칠레 투자 누적액 (실행액 기준)〉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투자액(실행액)
1	미국	16,337
2	스페인	13,887
3	캐나다	10,742
4	영국	5,660
5	호주	2,966
6	일본	1,871
7	이탈리아	1,657
8	네덜란드	1,611
9	프랑스	1,392
10	스위스	1,275
31	중국	85
32	**대한민국**	**40**
계		64,701

자료원: 칠레외국인투자위원회

○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칠레의 주요 교역국들의 투자 누계액이 100억불을 상회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수준은 매우 미미하며, 중국 및 에 비해서도 열위임.

3. 한, 중, 일 – 칠레 FTA발효에 따른 경쟁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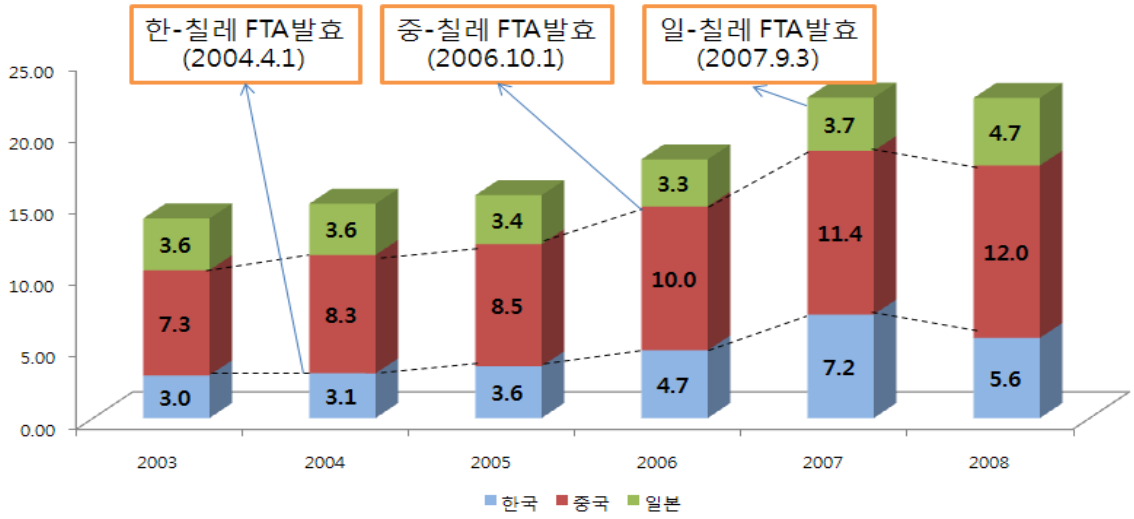
1) 중, 일 – 칠레 FTA 후 시장점유율 변화

□ 한, 중, 일의 칠레 수입시장점유율 변화

○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칠레와 FTA를 체결(2004.4.1 발효)하여 선점효과를 누렸으나, 2006년 10월 중국, 2007년 9월 일본과 칠레의 FTA(EPA)가 발효되어 한중일 3국 경쟁 구도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임.

- 2008년 중국과 일본은 칠레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각각 0.6%p, 1%p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7.2%에서 5.6%로 1.6%p 하락하여 대비를 이룸.

〈FTA 발효 전후 한·중·일 3국 대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한-중-일 3국의 대 칠레 수출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FTA 체결이후 3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 중국은 대 칠레 수입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가 되었으며, 수출품목 구성이 과거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전자·기계류, 철강 제품, 자동차 부문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4.7%의 대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로 한국에 이어 6위로, 2007년 9월에 발효된 FTA의 효과가 2008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부터는 더욱 치열한 경합이 예상

〈FTA 발효 전후 한·중·일 3국의 대 칠레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불, %)

국가명	연도별 수출액						시장점유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
한국	**506**	**696**	**1,076**	**1,641**	**3,088**	**3,161**	**5.6**
중국	1,245	1,847	2,539	3,487	4,878	6,795	12.0
일본	612	797	1,017	1,147	1,586	2,660	4.7
전세계	16,969	22,339	29,788	34,750	42,714	56,475	100.0

자료원: WTA

□ 중, 일 - 칠레 FTA 체결의 주요 양허안

○ 2006년 10월 1일 발효된 중국과 칠레 간의 FTA에 따르면, 품목수 기준 칠레산의 92%가 즉시 관세철폐, 중국산의 50%가 즉시 관세 철폐됨.

- 칠레산 제품 일부품목에 한해 5, 10년간 점진적인 관세철폐가 진행되며, 관세철폐 제외품목으로는 쌀, 밀, 밀가루, 기름, 목재, 제지, 요오드 등이 있음.

- 중국산 제품의 21%는 5년, 26%는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되며, 관세철폐 제외품목으로는 타이어, 섬유일부 품목, 냉장고 등이 있음.

○ 2007년 9월 3일 발효된 일-칠레 간 FTA 협정 비준안에 따르면, 품목수 기준 칠레산 제품의 80%, 일본산 제품의 78.1%가 즉시 관세 철폐됨.

-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칠레산 품목 7,414개는 2005년 기준 일본의 대 칠레 수입의 약 58.8%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양허제한품목으로는 낙농, 유제품, 임산물, 육류, 쌀, 밀, 밀가루 등이 포함되었음.

-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일본산 품목 6,168개는 칠레의 대 일본 수입의 약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 측 주요 보호품목으로는 금속가공물(알루미늄 관련제품 제외) 및 참치 등 수산물 등이 있음.

2)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의 한중일 경합 현황

○ 2008년 HS 4단위 기준, 한국의 대 칠레 10대 품목 중 일본과 중국 동시에 경합하는 품목은 총 4개이며, 일본이나 중국 중 한 국가와 경합하는 품목은 5개, 경합하지 않는 품목은 1개뿐임.

- 한, 중, 일 3개국이 경합하는 품목으로는 화물자동차(HS 8704), 휴대폰 등 전화기(HS 8517), 증기발생보일러(HS 8402), 황산과 발열황산(HS 2807) 임.

- 한국과 중국이 경합하는 품목은 평판압연제품(HS 7210), 텔레비전(HS 8528), 자동차부품(HS 8708)의 3가지이며,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으로는 석유와 역청유(HS 2710), 승용차(HS 8703)의 2가지 임.

- 10대 품목 중 유일하게 경합하지 않는 품목은 에텔렌의 중합체로 한국은 2008년 기준 8천만불을 수출하였으며, 수출액 측면으로 2006년 정점을 이룬 뒤 정체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의 칠레와 FTA 체결 이후, 대부분 경합 품목에서 이들의 수출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대 칠레 수출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화물자동차, 휴대폰 등 전화기, 텔레비전, 평판압연제품, 항산과 발연황산의 수출은 FTA 발효 전인 200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경우, 석유와 역청유, 화물자동차, 증기발생보일러, 황산과 발연황산이 FTA 발효 전인 2006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음.

〈한국의 대 칠레 10대 수출품목의 경합〉

(단위: 백만불, 억엔)

HS 코드	품목명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710	석유와 역청유 (한, 일)	한국	82	67	241	494	1,811	1,438
		중국	0	0	0	0	0	1
		일본	0	0	0	0	168	867
8703	승용차 (한, 일)	한국	117	190	271	377	517	525
		중국	-	-	-	-	-	41
		일본	290	377	592	646	881	955
8704	화물자동차 (한, 중, 일)	한국	30	42	76	79	115	90
		중국	0	0	0	4	18	72
		일본	84	84	58	96	145	219
3901	에틸렌의 중합체	한국	34	44	76	91	80	80
		중국	-	-	-	-	-	-
		일본	-	-	-	-	-	-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한, 중)	한국	7	10	11	31	40	66
		중국	-	-	0	16	23	70
		일본	0	1	1	1	1	1
8517	휴대폰 등 전화기 (한, 중, 일)	한국	1	2	1	2	86	56
		중국	-	-	-	18	22	78
		일본	1	3	2	1	4	11
8528	텔레비전 (한, 중)	한국	8	14	21	32	35	51
		중국	21	32	50	77	190	190
		일본	3	4	4	3	2	2
8402	증기발생보일러 (한, 중, 일)	한국	-	-	0	0	2	45
		중국		0		-	0	17
		일본	1	0	0	0	0	76
8708	자동차부품 (한, 중)	한국	19	23	26	30	35	39
		중국	5	8	8	14	20	31
		일본	2	3	3	2	4	3
2807	황산과 발연황산 (한, 중, 일)	한국	0	2	1	1	3	36
		중국	-	-	-	-	-	43
		일본	14	8	9	2	3	39

자료원: KOTIS

□ 석유와 역청유(2710[1]): 즉시 철폐, 5년 철폐)

○ 칠레의 석유와 역청유 수입시장은 200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8년 수입액 규모는 2003년 대비 15배로 확대되었음.

- 2003년에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액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이 15%로 2위, 미국이 13%로 3위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2008년도 아르헨티나의 시장점유율은 1.6%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시장점유율 57%까지 성장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점함.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석유와 역청유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431	776	1,512	2,216	4,617	6,651	100.0	100.0
1	미국	55	283	1,025	1,185	1,720	3,784	12.7	56.9
2	한국	65	61	154	515	1,775	1,361	15.2	20.5
3	일본	0	0	0	20	224	849	0.0	12.8
4	캐나다	0	13	22	65	476	321	0.1	4.8
5	페루	19	0	0	4	22	120	4.5	1.8
6	아르헨티나	231	297	242	189	181	105	53.5	1.6
7	싱가포르	0	0	0	0	77	73	0.0	1.1
8	네덜란드	-	0	4	1	2	7	0.0	0.1
9	브라질	2	13	4	4	4	5	0.4	0.1
10	콜롬비아	0	0	0	0	33	5	0.1	0.1

자료원: WTA

○ 동 제품에 대한 칠레의 수입 증가는 현지 주요 전력발전연료인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경유발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칠레는 천연가스 전체소비량의 84%를 아르헨티나에 의존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반복적인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자, 안정적인 산업 환경 조성 및 전력 위기 타개를 위해 경유발전을 확대하였음.

1) HS27101940은 즉시철폐품목이며 한국의 대 칠레 경유수출의 95% 이상을 차지

○ 한국의 대 칠레 석유와 역청유 수출은 2004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기준 연간 수출액 약 13억6천만불을 기록하였음.

- 동 수치는 FTA 이전인 2003년의 6천5백만불 대비 21배 증가한 것으로 석유와 역청유는 우리나라의 대 칠레 전체 수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음.

○ 일본의 경우 일-칠레 FTA 이후 수출액이 급격이 증가하여 2006년 0.9%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이 2008년 12.8%로 확대되면서 시장점유율 20.5%인 우리나라의 경쟁국가로 부상

□ 자동차(8703, 8704: 즉시 철폐)

○ 2008년 칠레의 승용차 수입시장은 200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화물자동차 시장은 약 4배 확대되었음.

- 칠레의 승용차 수입시장은 일본이 1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미국, 독일, 브라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칠레의 화물차 수입시장은 2003년 일본이 전체시장의 28%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에게 2005년 이후 1위의 자리를 양보함.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승용차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667	905	1,207	1,400	1,736	2,170	100.0	100.0
1	일본	197	266	356	387	482	666	29.5	30.7
2	**한국**	**107**	**180**	**281**	**366**	**509**	**595**	**16.1**	**27.4**
3	미국	38	49	71	94	121	163	5.6	7.5
4	독일	17	34	57	77	112	129	2.6	6.0
5	브라질	98	160	151	120	127	109	14.6	5.1
6	중국	0	0	0	12	34	93	0.0	4.3

자료원: WTA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화물자동차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442	633	1,007	1,120	1,417	1,688	100.0	100.0
1	미국	82	131	249	324	362	497	18.6	29.4
2	일본	123	161	187	178	251	242	28.0	14.4
3	태국	20	32	71	87	182	225	4.6	13.3
4	브라질	94	132	194	205	211	199	21.2	11.8
5	**한국**	**28**	**44**	**73**	**90**	**129**	**102**	**6.3**	**6.0**
6	아르헨티나	36	32	68	85	77	96	8.1	5.7
7	중국	-	-	0	5	15	83	0.0	4.9

자료원: WTA

○ 2008년 한국은 수출액 부문에서 승용차 시장점유율 2위, 화물자동차는 5위에 점하고 있으나, 자동차 신차판매대수 기준으로는 시장의 29.2%를 점유하면서 1위임.

- 한-칠레 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 판매대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2007년 처음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대수기준)이 일본을 앞지름.

- 한국은 1986년 칠레의 자동차 수입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약 20년 만에 칠레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하였음.

  · 2008년, 현대자동차가 올해의 브랜드로 선정됨.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신차판매 현황〉

(단위: 대, %)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총 계	119,501	100	148,573	100	182,347	100	190,639	100	227,743	100	239,835	100
한국	**22,510**	**18.8**	**31,202**	**21.0**	**42,320**	**23.2**	**48,925**	**25.7**	**66,729**	**29.3**	**69,977**	**29.2**
일본	28,109	23.5	37,716	25.4	46,140	25.2	49,762	26.1	57,322	25.2	60,212	25.1
아르헨티나	22,258	18.6	28,672	19.3	29,173	16	22,486	11.8	20,307	8.9	14,324	6.0
중국	0	0	0	0	0	0	920	0.5	5,425	2.4	17,732	7.4

자료원: 칠레자동차협회(ANAC)

○ 한국산 자동차는 각 세그먼트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세단형보다는 SUV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칠레 세단형 시장은 10대 판매 모델 모두 1,000~1,500cc급이며, 주요 브랜드는 현대, 기아, Chevrolet, Toyota 등 한-미-일 브랜드 비중이 높음.

- 2008년 한국의 칠레 세단형 자동차 주요 모델 총 판매대수는 22,533대를 기록, 32,161대를 기록한 일본에 뒤짐.

〈2008년 칠레 세단형 자동차 판매 순위〉

(단위: 대)

순위	브랜드	모델명	합계
1	TOYOTA	YARIS	16,758
2	CHEVROLET	CORSA	10,984
3	CHEVROLET	AVEO	8,230
4	CHEVROLET	SPARK*	6,973
5	HYUNDAI	ACCENT	6,963
6	NISSAN	V16	6,462
7	SUZUKI	ALTO	5,532
8	KIA	MORNING	4,384
9	KIA	RIO	4,213
10	MAZDA	MAZDA3	3,409

주: Chevrolet Spark모델은 GM대우 마티즈로 한국산에 포함.
자료원: 칠레자동차협회(ANAC)

〈2008년 칠레 SUV형 자동차 판매 순위〉

(단위: 대)

순위	브랜드	모델명	TOTAL
1	HYUNDAI	TUCSON	4,334
2	HYUNDAI	SANTA FE	3,747
3	SUZUKI	GRAND NOMADE	3,388
4	DAIHATSU	TERIOS	2,258
5	KIA	SPORTAGE	2,087
6	FORD	ECOSPORT	1,476
7	SUZUKI	GRAND VITARA	1,431
8	HONDA	CRV	1,406
9	TOYOTA	RAV4	1,362
10	CHRYSLER	JEEP COMPASS	1,109

자료원: 칠레자동차협회(ANAC)

- 반면 SUV 시장에서 한국산 중소형 모델이 모두 판매 면에서 상위에 오르면서 세단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2008년 한국산 SUV 모델은 각각 1, 2위와 5위를 기록, 전체 10,168대의 판매를 기록하였음.

〈중국생산 자동차의 브랜드별 판매대수 및 점유율〉

(단위: 대, %)

순위		승용차		SUV		상용차		합계	
	제조사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1	Great Wall	0	0.0	1,006	2.7	2,135	4.2	3,141	1.5
2	Hafei	238	0.2	0	0.0	2,550	5.0	2,788	1.3
3	Chery	2,390	1.9	370	1.0	0	0.0	2,760	1.3
4	Changan	606	0.5	0	0.0	1,709	3.3	2,315	1.1

자료원: 칠레자동차협회(ANAC)

○ 칠레의 자동차 수요 증가에 비해 일본 자동차의 수입은 2007년 일-칠레 FTA 체결 이후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중-칠레 FTA 발효 이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함.

- 일본은 칠레와의 FTA 이후 중저가 모델 이외에 럭셔리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판하면서 금액 면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판매대수 면에서는 한국에게 1위를 내줌.

- 중-칠레 FTA 체결 전인 2005년까지 자동차 판매실적이 없던 중국은 신차 판매대수 면에서 2006년 0.5%, 2007년 2.4%, 2008년 7.4%로 점유율이 크게 신장하였음.

- 중국은 2008년 기준 약 10개 브랜드가 칠레시장에 진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고차 수요층을 흡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칠레 시장에 시판되고 있는 중국산 브랜드는 SUV 전문기업인 Great Wall을 비롯 Hafei, Chery, Changan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SMA, BYD 등도 판매되고 있음.

○ 일부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중국산 저가모델과는 다소 경쟁이 있겠지만 당분간 칠레 자동차 시장은 한-일 경쟁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검증되지 않은 품질 및 일반적인 중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당분간 한국산 자동차 주 수요층이 대거 중국산 자동차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폴리에틸렌(에틸렌 중합체)(3901[2]):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 칠레의 폴리에틸렌 제품 수입시장은 200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총 수입액은 200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억불을 기록

- 2003년 칠레의 폴리에틸렌 시장은 브라질이 전체수입시장의 약 37%를 차지하면서 1위를 점하고, 그 뒤를 한국과 아르헨티나, 미국 등이 쫓고 있는 양상이었음.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폴리에틸렌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158	238	325	368	428	500	100.0	100.0
1	미국	23	38	38	31	149	201	14.6	40.3
2	한국	33	40	74	108	80	94	20.8	18.8
3	브라질	58	84	108	122	119	88	36.9	17.5
4	아르헨티나	24	42	46	47	38	49	15.3	9.7
5	캐나다	2	7	9	8	9	26	1.1	5.1
6	멕시코	3	4	3	5	8	9	2.2	1.7
7	사우디	0	1	2	1	2	6	0.1	1.2
8	스페인	2	2	3	3	2	4	1.2	0.9
9	호주	-	1	1	9	7	4	0.0	0.8
10	벨기에	4	4	8	5	4	3	2.6	0.7

자료원: WTA

2) 39012000는 즉시철폐품목으로, 2008년 한국의 대 칠레 폴리에틸렌(3901) 수출액 중 75% 차지함. 그 외 39011020은 3년 철폐, 39011010은 5년 철폐 품목임.

- 2008년 브라질이 칠레의 폴리에틸렌 수요증가세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이 1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의 대 칠레 폴리에틸렌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3년의 20.8%보다 감소한 18.8%로, 총 수출액은 9천4백만불 수준임.

- 한 칠레 FTA 이후,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전체수입시장의 29%를 차지하며 정점을 이뤘지만, 2007년 급격한 감소를 나타낸 후 2008년에는 다소 증가함.

○ 현지 주요 바이어 접촉 결과, 한국산 제품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현지 딜러 또는 파견인력을 활용한 A/S 채널 확보, 칠레 유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탁월한 품질관리 및 현지 바이어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주재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의 비결임.

○ 중국,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13%와 0.01%로 한국의 대 칠레 수출 10대 품목 중 유일하게 한국산과 경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3]: 5년, 10년, 13년 관세인하 품목)

○ 2008년 칠레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 수입시장 규모는 2003년 대비 3.4배로 확대되었음.

- 2003년 칠레의 평판 압연제품의 수입시장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음.

- 2008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03년 대비 1.5배, 1.2배 증가율을 나타내며,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 3, 4위로 하락하였음.

3) 72107000는 5년 관세철폐품목으로 한국의 대 칠레 평판압연제품 수출액 중 45%를 차지하며 43%를 차지하는 72106100은 13년 관세철폐 품목임.

○ 한국의 대 칠레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수출액은 2008년에는 7천2백만불로, 시장점유율 31.9%를 기록하였음.

-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3년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7백만불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10% 안팎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수출액은 10배, 시장점유율은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수출 증가요인으로는 칠레 광산, 전력 프로젝트 증가 및 건설업 호황 등을 들 수 있음.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평판압연제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66	109	86	153	161	224	100.0	100.0
1	**한국**	**7**	**10**	**11**	**35**	**40**	**72**	**10.8**	**31.9**
2	중국	0	0	0	15	23	69	0.0	30.8
3	브라질	18	17	13	17	22	28	28.0	12.3
4	아르헨티나	17	45	37	56	43	20	26.5	9.0
5	인도	0	1	1	5	5	6	0.5	2.6
6	벨기에	1	0	0	2	1	5	1.5	2.2
7	영국	2	3	3	0	2	5	2.5	2.2
8	멕시코	5	7	5	1	2	3	7.3	1.5
9	콜롬비아	2	6	1	2	3	3	2.4	1.4
10	룩셈부르크	7	9	8	8	3	3	11.3	1.4

자료원: WTA

○ 2008년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우 30.8%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

- 중-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5년 중국의 대 칠레 평판압연제품 수출은 1천불 미만이었으나 이 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 수출액이 6천9백만불에 달함.

- 향후 한국제품과의 중국제품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지 주요 철강바이어와의 인터뷰 결과, 중국산 제품의 품질개선으로 인해 중국제품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중국제품의 경우, 제품생산 경험부족 및 시장별 선호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바이어가 정확한 제품 사양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점이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됨.

□ 휴대폰 등 전화기(8517: 5년 철폐)

○ 칠레의 휴대폰 등 전화기에 대한 수입은 2003년 이후 2006년까지는 성장률 변화가 미미하였으나, 2007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8년 1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3년 대비 1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 칠레 통신청에 따르면 2003년 12월 45.4%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보급률이 2008년 12월 87.8%로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 등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2003년 칠레의 휴대폰 등 전화기 수입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멕시코가 전체 수입시장의 25.7%를 차지하면서 1위를 점함.

〈칠레 연도별/국가별 휴대폰 등 전화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108	166	202	237	1,139	1,256	100.0	100.0
1	멕시코	7	7	9	18	345	322	6.4	25.7
2	중국	20	22	34	37	183	298	18.5	23.8
3	브라질	1	1	4	3	152	188	1.1	15.0
4	미국	28	34	50	57	84	102	26.1	8.1
5	스웨덴	6	26	29	30	73	83	5.8	6.6
6	**한국**	**1**	**2**	**1**	**2**	**96**	**78**	**1.3**	**6.2**
7	핀란드	1	18	11	11	38	32	1.2	2.6
8	말레이시아	3	5	6	6	33	30	2.5	2.4
9	독일	3	2	3	12	25	20	2.7	1.6
10	캐나다	3	6	8	17	21	18	2.6	1.4

자료원: WTA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휴대폰의 대 칠레 수출은 FTA 체결 이후 2006년까지는 증가율이 저조하였으나, 2007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점을 이룬 후 2008년 다소 감소한 7천8백만불을 기록, 칠레시장 내 6위에 그침.

○ 중국의 대 칠레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3%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16.1%에서 23.8%까지 끌어올렸으나, 일본은 0.9%에 불과하며 12위에 그침.

○ 일본의 대 칠레 휴대폰 수출 부진은 대기업이 고가 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의 생산기지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해외 이전한 결과임.

- 일본의 경우 현재 칠레시장에 SonyEricsson 브랜드만을 시판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품은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칠레 휴대폰시장 내 고가제품 수요층이 전체 인구 대비 소수에 불과하여 일반소비자에게는 고가모델 위주의 일본제품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브라질산 저가모델이 선호되고 있음.

□ TV(8528: 즉시철폐)

○ 칠레 TV 수입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시장규모는 2003년 대비 4.4배 확대됨.

- 2003년 칠레의 TV 수입시장은 멕시코가 전체의 43.4%의 점유율로 1위를 점하였으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7년 중국에게 1위의 자리를 내줌.

○ 한국은 2003년 7.3%였던 수입시장 점유율을 2008년 12.2%까지 올리면서 수입액 기준 3위를 유지하고 있음.

- 브랜드 인지도 및 소비자 선호도 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중국이나 멕시코 제품을 월등히 앞선 상황으로 삼성, LG 제품이 판매증가를 견인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TV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99	139	189	289	408	439	100.0	100.0
1	중국	13	31	49	81	198	209	12.8	47.8
2	멕시코	43	63	89	133	121	129	43.3	29.3
3	**한국**	**7**	**13**	**21**	**36**	**36**	**53**	**7.3**	**12.2**
4	미국	3	3	4	5	16	18	2.6	4.1
5	대만	0	0	1	3	6	10	0.4	2.3
6	세이셀	-	-	-	-	6	6	0.0	1.4
7	미확인국	0	1	1	1	5	4	0.3	0.9
8	일본	6	8	7	5	4	3	6.5	0.7
9	캐나다	2	0	0	0	1	1	2.3	0.3
10	말레이시아	0	0	1	0	0	1	0.4	0.2

자료원: WTA

□ 증기발생 보일러(8402[4]): 5년, 10년 철폐)

○ 칠레의 증기발생 보일러의 수입은 2003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2008년 사상 최대 수입액인 2억7천만불을 기록함.

- 2003년 칠레 증기발생 보일러 수입의 54%를 차지하던 핀란드는 2005년 57%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8년에는 대 칠레 증기보일러 수출액이 1백만불 미만으로 집계

○ 2008년 한국산 증기발생 보일러 수입액은 2003년 대비 7배 증가하며 칠레수입시장 내 1위를 차지하였음.

- 2008년 한국의 대 칠레 증기발생 보일러 수출은 8천6백만불로 시장점유율 2위인 일본과 112.6%p 차이인 시장점유율 32.4%를 기록하였음.

4) 84021190는 5년 철폐품목으로 8402 수출액의 99.8%차지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증기발생 보일러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70	25	108	23	28	266	100.0	100.0
1	**한국**	**0**	**0**	**0**	**0**	**6**	**86**	**0.1**	**32.4**
2	일본	-	-	0	0	2	53	0.0	19.8
3	슬로바키아	-	-	-	-	-	40	0.0	15.2
4	중국	0	0	0	-	3	32	0.3	12.2
5	브라질	8	7	13	5	9	11	11.8	4.2
6	독일	4	1	2	1	2	9	6.3	3.5
7	인도네시아	-	-	-	-	-	7	0.0	2.5
8	미국	4	7	7	3	4	6	5.1	2.2
9	폴란드	-	-	6	-	-	4	0.0	1.4
10	대만	0	0	0	-	-	3	0.0	1.3

자료원: WTA

○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산 제품은 각각 3천2백만불과 5천3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의 경우, 자국 기업 제품보다는 일본 기업의 중국생산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2강 체제임.

○ 한-일 양국의 대 칠레 증기발생 보일러 수출 증가는 현지 프로젝트 투자진출을 자국제품 수출확대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칠레 증기발생 보일러 수출 증가시점인 2007년은 Posco E&C가 2006년 9월 수주한 Ventanas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시기였으며, 2008년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세는 Angamos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및 건설에서 기인함.

-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Mitsubishi사의 Guacolda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자국 제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도 각 발전사별 증기발생 보일러 수입 현황〉

(단위: 천불, %)

순위	기업명	수입액	점유율
1*	EMPRESA ELECTRICA GUACOLDA S.A	90,464	34.0
2**	EMPRESA ELECTRICA VENTANAS S.A	75,923	28.5
3	COLBUN S.A.	28,945	10.9
4	EMP.NACIONAL ELECTRICIDAD S.A.	24,208	9.1
5	CENTRAL TERMICA MEJILLONES S.A	17,444	6.6
6	CELULOSA ARAUCO Y CONSTITUCION	8,187	3.1
7	CIA.NACIONAL DE ENERGIA LTDA.	3,219	1.2
8	PRECISION S.A.	2,644	1.0
9**	EMPRESA ELECTRICA ANGAMOS S.A	2,417	0.9
10	CAMPANARIO GENERACION S.A.	1,735	0.7

주 *: Mitsubishi 수주 프로젝트
**: Posco E&C 수주 프로젝트
자료원: LexisNexis

□ 황산과 발열황산(2807: 5년 철폐)

○ 칠레는 황산과 발열황산 수요 급증으로 2003년 1천4백만불에 불과했던 수입액이 4억5천2백만불로 증가하면서, 불과 5년만에 시장이 33배로 확대

- 광산업이 국가 기반산업인 칠레의 주요 수입품인 황산제품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던 2007년과 2008년 현지 구리광산업체의 수요 증가 및 현지 건설 분야 호황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늘었음.

○ 2008년 기준, 칠레의 1위 황산수입국은 인도로 총 수입액 9천2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한,중,일 3국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대 칠레 황산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07년 4배, 2008년 3배 증가한 7천4백만불로 2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함.

- 일본의 경우 FTA 발효시점인 2007년, 전년 대비 4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또한 약 3배 증가하여 6천3백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음.

- 중국의 경우 2007년까지 수출실적이 전무하였으나 2008년 최초로 5천8백만불을 수출하여 단숨에 시장점유율 12.9%를 기록, 삼국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칠레의 연도별/국가별 황산과 발열황산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입액						점유율	
순위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8
전세계		14	16	32	36	109	452	100.0	100.0
1	인도	-	-	-	-	11	92	0.0	20.3
2	**한국**	**2**	**2**	**5**	**6**	**26**	**74**	**12.1**	**16.4**
3	일본	5	4	6	5	20	63	37.0	13.9
4	중국	0	-	-	-	-	58	0.6	12.9
5	필리핀	-	1	0	-	9	56	0.0	12.4
6	페루	3	4	4	4	26	55	23.3	12.1
7	멕시코	0	0	11	13	3	17	0.3	3.7
8	스페인	0	-	-	0	2	10	2.6	2.3
9	인도네시아	-	-	-	-	0	8	0.0	1.9
10	캐나다	-	-	-	1	-	5	0.0	1.1

자료원: WTA

4. 우리기업의 진출성공사례

1) 대기업 성공사례

□ 포스코 건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중남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성공

빠른 사업진행과 문제해결로 칠레 현지 업체에 한국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도 축적,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중남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 과거 중남미 시장의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은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동, 동남아 및 CIS 지역 시장에 주력해왔음.

○ 2006년 진출 초기 현지 업계 또한 포스코 건설의 시공능력에 신뢰를 갖지 못해, 과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음.

○ 우리 기업 특유의 장점인 빠른 사업진행 및 문제해결로 인해 점차 신뢰도가 축적되었고, 그 결과 1차 프로젝트인 Ventanas 프로젝트 수주 후 1년만에 2건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 현재 총 수주규모는 18억불에 달하며 향후 추가 프로젝트 수주 및 주변국 프로젝트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포스코 건설의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우리 업계의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이미지 강화를 통해 후발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을 높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

□ 한국타이어: 한국 자동차의 수출증가세에 발빠른 대응

관세 즉시철폐 품목인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유통망 등을 활용한 신속한 시장진출로 FTA 효과 적극 활용

○ 관세가 즉시 철폐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증가에 따른 한국산 타이어의 수요 증가를 정확히 예측함.(한국산 타이어는 10년간 점진적 관세 철폐 품목)

○ 유통업체의 파워가 막강한 칠레 시장의 특성을 활용, 현지 유력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제품 유통업체인 D사와 제휴를 통해 칠레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그 결과 FTA 체결 이전인 2003년 3백만불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2008년 4배 증가한 1천2백만불을 기록하였음.

□ LG 전자: 최첨단기업의 이미지 구축 및 FTA로 가격경쟁력 확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 현지시장에서 구미 브랜드의 인지도를 뛰어 넘는 최첨단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칠레 가전시장 내 최고로 부상

○ LG전자의 칠레시장 진출 초기(1981년)에는 미국 및 유럽브랜드의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이 초기진출 장벽으로 작용하였음.

○ 냉장고를 시작으로 세탁기, 에어컨 등 LG의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출시하였고, LCD, PDP, 휴대폰 등 시판 품목을 확대하면서 첨단기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었음.

○ 아울러 한-칠레 FTA로 기술력과 함께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칠레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그 결과 LG 전자는 칠레 주요 가전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진출 분야를 확대, 시스템 에어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2) 중소기업 성공사례

□ 이건산업: 현지법인설립으로 칠레와 제3국 간 FTA망 활용, 수출판로 확대

한국으로의 목재 공급기지 역할을 위해 칠레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한국의 목재수요 감소에 따라, 칠레가 FTA를 체결한 타국가로의 수출대상국 다변화 성공

○ 1993년 국내기업 최초로 칠레 임업 분야에 투자 진출한 이건사업은 현지법인 L사를 설립함으로써 목재 가공 및 한국 수출을 개시하였음.

○ 그러나 이후 한국의 목재 수요가 감소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칠레의 FTA망을 활용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국으로 수출대상국 다변화 실시

- 이건산업 칠레법인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멕시코,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이며 대 한국 수출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건산업의 전체 수출액은 약 2,850만불을 기록, 1997년 대비 375% 증가하였음.

○ 이건산업의 칠레시장 진출 모델은 칠레와 FTA를 체결한 제3국 수출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평가됨.

□ 진성냉기: 칠레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식품 유통 분야의 잠재 수요 발굴

남북으로 긴 칠레의 지리적 특성상 장시간 이동에 필요한 냉동장치의 수요를 파악,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으로 현지 바이어와 신뢰관계 확립

○ 전체 길이가 4,200Km에 달하는 칠레의 지리적 특성상 식품류의 유통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차량용 냉동탱크를 생산하는 진성냉기는 시장진출 및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KOTRA를 통한 지속적인 시장동향 분석 및 현지 파트너 업체를 발굴로 현 거래업체인 S사와 2007년 첫 거래를 성사시켰음.

○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 완벽한 A/S를 통해 바이어와 신뢰관계를 확립한 결과,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수출 유지

○ 향후 진성냉기는 칠레시장을 기반으로 현지 파트너업체와 함께 페루 등 주변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중남미 조립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음.

□ Powerex: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 확보, 수입업체의 거래선 전환에 성공

FTA 체결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와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존의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던 칠레 최대 기계류 수입유통업체의 거래선 전환에 성공

○ 기계류 수출업체인 Powerex는 타깃 바이어의 주요 거래국 및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사제품이 보유한 기술 및 품질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활용

- 타깃 바이어였던 E사는 다국적 기업 브랜드 및 저가 중국산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칠레 최대 기계류 수입유통업체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높은 한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음.

○ 그러나 Powerex는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기존 거래처 제품에 비해 월등한 품질을 홍보함으로써 칠레시장에서 첫 거래로는 큰 규모인 10만불의 초기 오더를 성사시킬 수 있었음.

5. 한-칠레 FTA 5주년 시사점

1) 한-칠레 FTA 5주년 의의

□ 한국 최초의 FTA로서 타 FTA추진의 발판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다자간 협상에 치우쳐 있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 방향에 변화를 제시한 기념비적인 협정으로 의미가 있음

- 한-칠레 FTA 체결 과정에서의 경험은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회원국, 미국 등과 FTA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됨

- 또한 한-칠레 FTA는 발효 5주년을 맞아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가 파악, 분석되어 타국과의 협정 추진 시 참고자료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보완적 산업구조를 활용한 Win- Win 효과

○ 한-칠레 FTA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한 교역확대로 양국 모두 이득을 보는 Win-Win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양국 비교우위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무역창출효과가 극대화됨.

- FTA 타결 초기에 농업분야에서의 시장잠식이 우려됐던 국내 농업 붕괴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 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인지도 상승 및 수출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시장 확대 가능성 시현

○ 또한 칠레와 한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으로 상대국의 FTA 네트워크 활용가능성을 보임.

- 칠레는 아직 ASEAN 국가와, 한국은 중남미 및 EU 등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하지 않아, 서로의 FTA 체결망을 활용한 자국 내 우위제품의 FTA 미체결 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해졌음.

□ 칠레정부의 한 칠레 FTA 평가

○ 칠레 정부 또한 한-칠레 FTA를 가장 성공적인 FTA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 상품의 수출선 다변화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국가 브랜드, 상품 인지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09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한-칠레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카를로스 푸르체 칠레 외교부 통상차관은 "칠레에서도 한-칠레 FTA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의 FTA를 모델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FTA를 맺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2) 대 칠레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

□ 칠레의 이분화 된 시장구조와 소비자 특성에 대한 이해

○ 칠레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소비층과 브랜드 및 고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층의 양극화가 뚜렷하여 초기 시장진출 시 타깃시장 선택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실례로 과거 모 자동차 회사가 칠레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당시 택시용 차량을 대량 공급하면서 동 기업의 차량은 택시용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추후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음.

○ 또한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남미의 선진국으로서 소비자의 눈높이 및 품질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점을 감안, 저가시장 진출 시에도 반드시 기본적인 품질 및 디자인의 차별화가 필요함.

□ 유망상품 발굴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 현재 우리나라의 대 칠레 제품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일부 기계류에 국한되고, 첨단제품 및 대형 기계류의 경우 여전히 미국, 유럽 및 일본 제품의 점유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지 에너지(전력) 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기계장비 수요 기업에 따르면, 해당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GE(미국), 히타치(일본), 미츠비시(일본), 지멘스(독일) 등이며, 한국 기업의 경우 P사와 D사의 일부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칠레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장비와 기계류, 부품, 첨단장비와 함께 신규 유망상품의 수출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산티아고 KBC는 신규 수출 유망품목으로 절전기(전력부족), 통신케이블(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 냉동탑(유통망 확대), 자동차 부품 및 축전지(자동차 판매 급신장), 의료기기(설비 현대화 수요), PET 제품(음료시장 호황) 등을 꼽음.

□ BOT 프로젝트 시장 진출 도전

○ 칠레에는 정부주도로 연간 20~25건의 SOC 프로젝트가 개발, 추진되고 있으며 모두 BOT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음.

- 이 분야는 이미 한국 기업이 기술력과 경험 부분에서 앞서있는 도로건설,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 특히 BOT 시장의 경우 현지 정부가 BOT 프로젝트 수주기업에 대해 20~25년간의 계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함에 따라 가장 안정적인 투자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중남미 SOC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은 불안정한 정치, 경제체재 및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BOT 방식 등이었음.

○ BOT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기 진출 기업의 성공사례 모니터링, 현지 및 구미 유력기업과의 컨소시엄 활용 등 방안 강구 필요

□ IT 분야 및 e-government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 칠레의 IT 인프라 환경은 중남미 최고 수준이나 아직 국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칠레 정부는 장기적인 IT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지 Telefonica, Entel 등 대표 정보통신 기업도 자사 통신망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임.

- 그 결과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IT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칠레의 e-government 시스템 또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서고 있으나 각 부문별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실제로 칠레 정부조달, 관세청 및 국세청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나, 보건, 교육 및 민원서비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e-government 시스템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전자정부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거나 국가 간 기술협력을 통한 시스템 선진화를 모색 중에 있으며, 특히 한국의 선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사례 및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칠레의 IT, 통신, e-government 분야의 시장 확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와 같은 협력채널 확대를 통한 양국 간 민관 교류 활성화가 요구됨.

- 예컨대, 정보통신협력위원회, 전자정부 협력위원회 등의 협력기구 설치, 포럼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 칠레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극대화해야 함.

□ CDM 등 환경 분야 협력 확대

○ 최근 칠레 정부는 자국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남미 CDM 프로젝트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07년 칠레 정부는 전체 전력기업의 총 생산 전력 중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Tokman법을 제정하는 한편, CDM 분야 육성을 통해 환경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섬.

○ 또한 칠레 무역진흥기관인 Prochile는 CDM 프로젝트 발굴 및 외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CDM 프로젝트 전용 DB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뱅크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환경산업 분야 공동 연구 및 기술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기회 모색 필요

- 일본의 경우 칠레 정부와 적극적인 CDM 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이미 일-칠레 CDM 협력위원회를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본 기업들의 칠레 CDM 시장 진출이 추진되고 있음.

□ 문화 컨텐츠 등을 활용한 홍보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문화사절단 파견 등 중남미에 불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활동 실시

- 칠레 문화비평가협회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2005년도 최우수 외국영화로 선정하였으며, 칠레대학교는 국제연구소 산하에 한국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급속한 발전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 등 한국 경제 이미지 제고

- 한국의 경제 발전은 중남미의 경제성장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는 한국 경제와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참고 1. 칠레의 대외 교역동향

○ 칠레의 주요 수출 품목은 구리, 농축임수산물 및 1차 가공품(어분, 제재목, 표백펄프, 메탄올 등)이며 석유, 기계류, 자동차 및 기타 공산품 전반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1차 산업 중심으로 발달한 산업구조로 인해 칠레는 업계의 저항 없이 대외 무역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

○ 2008년 칠레의 연간 대외 교역은 수출 696억불, 수입 565억불로 약 13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대비 무역 흑자폭이 약100억불 감소하였음.

- 칠레의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2006년과 2007년에는 무역흑자가 200억 불 이상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들어 무역흑자 상승폭이 축소됨.

- 2008년 상반기까지는 칠레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의 국제거래가격이 강세를 보여 광산분야의 수출이 활발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부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경기 침체로 농산물, 목재, 와인 등 기타 주요 생산품의 수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칠레의 연도별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불)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30,901	38,598	55,884	65,788	69,580
수입	22,339	29,788	34,750	42,714	56,475
수지	8,562	8,809	21,134	23,074	13,105

자료원: WTA

참고 2. 칠레의 FTA 체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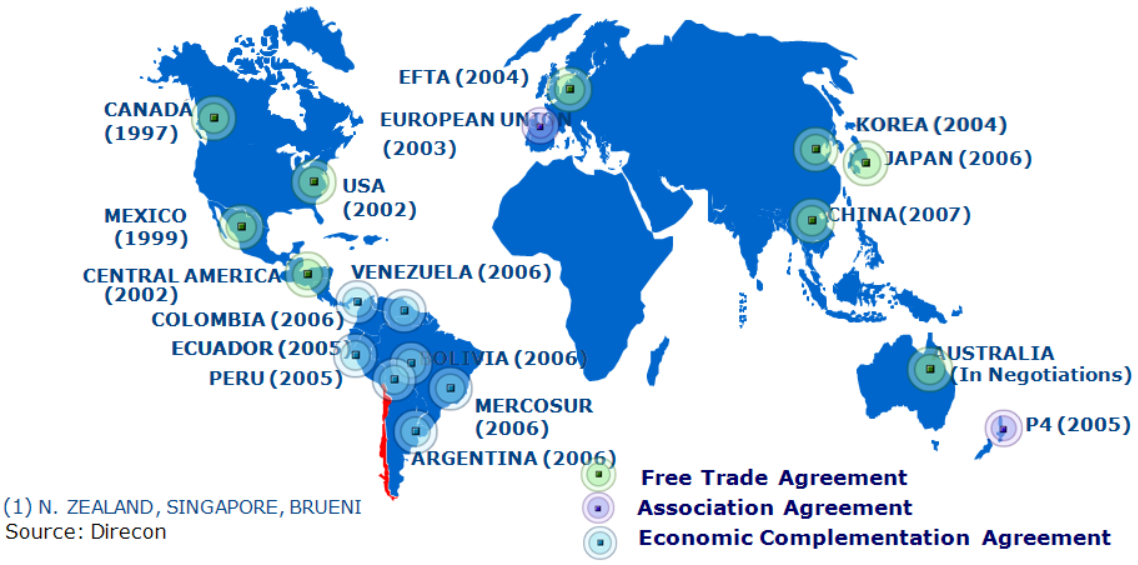
○ 피노체트 집권 이후 꾸준한 경제개방에 의한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칠레는 적극적인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모색 중임.

- 1997년 캐나다와의 FTA를 시작으로 2009년 2월 현재 총 20개의 협정을 통해 세계 58개국과 무역협정 체결

○ 칠레는 협정국과의 교역이 총 교역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평균 수입관세율이 2%미만이며,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전 품목 6%의 단일관세율을 적용

- 따라서 칠레와의 FTA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칠레시장에서 경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략 마련이 요구됨.

〈칠레의 주요 FTA 체결 현황〉



협정종류	체결 국가		체결 시기	발효 시기
EPA	EU 27개국		2002.11.18	2003.2.1
	P4 3개국(1)		2005.7.18	2006.11.08
	일본		2007.3.27	2007.9.3
FTA	캐나다		1996.12.5	1997.7.5
	멕시코		1998. 4.17	1999.8.1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1999.10.18	2002.2.14
		엘살바도르		2002.6.3
		과테말라		국회 상정 예정
		온두라스		2008.8.28
		니카라과		양자 협상 중
	한국		2003.2.15	2004.4.1
	미국		2003.6.6	2004.1.1
	EFTA 4개국(2)		2003.6.26	2004.12.1
	중국		2005.11.18	2006.10.1
	파나마		2006.6.27	2008.3.7
	페루		2006.8.22	2009.3.2
	콜롬비아		2006.11.27	국회 계류 중
	호주		2008.7.30	2009.3.6
ECA	베네수엘라		1993.4.6	1993.7.1
	볼리비아		1993.4.6	1993.7.7
	에콰도르		1994.12.20	1995.1.1
	MERCOSUR 4개국(3)		1996.6.25	1996.10.1
PTA	쿠바		1998.8.21	2008.8.28
	인도		2006.3.8	2007.8.17

주: (1) P4 3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나머지 1국은 칠레
(2) EFTA 4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3) Mercosur 4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협정 종류에 따른 개념 설명〉

* EPA: FTA보다 넓은 개념(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인적교류 포함)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 무역자유화(관세철폐)를 중점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ECA: 무역 자유화 상품 범위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FTA보다 자유화 정도가 다소 약한 형태의 무역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PTA: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로 특정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주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 분석 및 마케팅 전략 -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트렌드	2009.3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져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HR マネ-ジャ-のための 核心勞動判例集	2009.3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작성자

◈ 산티아고 KBC 성기주 과장
◈ 구미팀 김한나

Global Issue Report 09-006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발 행 인 | 조환익
편 집 인 | 곽동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9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